

이영수 원장 신년 인터뷰

## 2016년, 열정과 소통으로

# 도전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년인사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마무리되고 붉은 원숭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다재 다능하고 열정적인 원숭이처럼 올 한해 우리 생기원 직원들은 물론 독자 여러분 모두 가진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열정적인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2016년 새해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모두에게 좋은 한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인들이 2016년을 전망하는 단어로,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사자성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올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해가 되겠지만 서로 이해하고 고난과 역경을 함께 극복해나가는 슬기를 발휘하지는 '동주공제'의 뜻을 함께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새해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계획을 세우고 개개인 모두가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15년에 대한 평가와 2016년의 포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년 2015년을 마무리하며 생기원 10대 성과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그 중 기관 기술료가 2015년 목표인 84억 원을 120% 상회하는 112억 원을 올렸습니다. 생기원이 목표했던 100억 원 조기 달성을 이뤄낸 점은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5년 10월에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기술이전사업화 우수기관으로, 12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15년 기술이전·사업화지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역시 좋은 성과로 기억됩니다.

올해는 300개의 실용화 관련 공공기관 중 2위를 차지했지만, 내년에는 기관이 더욱 노력해 1위를 차지해 명실상부한 실용화 전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는 한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기술료라는 것은 연구 성과를 기업이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하기에 연구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값진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지난해 3월에는 생기원 1호 연구소기업인 'KST플랜트'가 설립되었습니다. 연구개발 성과가 창업, 연구소기업 등으로 이어져 연구원들의 연구개발 성과들이 더욱 세상에 널리 퍼질 수 있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2016년에도 생기원은 기업이 인정해주는, 더 나아가 전 국민이 인정해주는 생산기술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